

北魏 孝文帝의 服飾 改革에 관한 연구*

박 현 정 · 이 순 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ostume Reformation of Bei-Wei(北魏) Xiao-wen-di(孝文帝)

Hyun-Jung,Park · Soon-Won,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Bei-Wei(北魏) arose from Ta-ba clan(拓跋氏), a race belonging to Xian-bei(鮮卑), and it was the first foreign dynasty that reigned the central area of China in A.D.386-534.

Xiao-wen-di(孝文帝) found it necessary to adopt the ruling mechanism of Han race's(漢族) 'Sino-Centralism' so as to establish orthodoxy of Xian-bei(鮮卑) dynasty. He ordered Xian-bei(鮮卑族) people to change their own costume for the costume of Han race. Costume was one of ruling means in Xiao-wen-di(孝文帝)'s case. However, the revolutionary policy of Sinonization by Xiao-wen-di(孝文帝) brought about serious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among classes of Xian-bei(鮮卑). Xian-bei(鮮卑) wore their own costume and opposed Xiao-wen-di(孝文帝)'s policy. Consequently, Xiao-wen-di(孝文帝)'s Sinonization policy accelerated the downfall of Bei-Wei(北魏).

In the course of reformation and downfall of Bei-Wei(北魏), costume played an important role of representing national identity.

Key Word : 복위, 효문제, 복식개혁, 중화사상, 민족정체성

Bei-Wei, Xiao-wen-di, costume reformation, Sino-Centralism, national identity

* 본 논문은 1999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속 생활과학연구소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 되었음.

I. 서론

고대 중국에서 服飾은 禮의 목적과 기능을 실천하고 돕는 역할을 하였다. 복식의 형식과 제도는 인간과 우주만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각각의 위치를 정함으로써 심리적 기복 조정 및 사회화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사회조직내의 신분과 계급을 표시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케 하여 治者에게는 중요한 통치수단이 되었다.¹⁾ 따라서 중국에서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때마다 前代의 제도를 참작하고 가감하여 當代의 服飾制度²⁾를 정비하곤 하였는데 이는 異民族으로서 중국을 통치한 北魏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北魏는 鮮卑族 중의 拓跋部가 서기 3세기경 만주의 洮兒河 유역의 유목지에서 발흥하여 선리와 諸北族의 부락을 병합한 후 점차 남하하여 당시 이른바 5호 16국 시대였던 북중국으로 들어와 이들 제국을 평정하고 太祖 道武帝 이하 11帝 약 150년(386-534)간 북중국과 내몽골을 통치한 왕조이다. 中原을 통치한 최초의 異民族 왕조인 북위의 통치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철저한 同化정책이었다.³⁾ 이러한 동화정책은 高祖 孝文帝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郊祀宗廟禮의 개혁, 官制개혁, 胡服금지, 胡語금지, 洛陽遷都, 姓族分定 및 改姓 등이 그것이다. 언어는 민족 자존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정복자 스스로 모국어를 버리고 피정복자의 언어를 유일한 공용어로 自民族에게 강요한 것은 역시 異民族 왕조였던 遼, 金, 元, 및 淸朝에서도 예가 없는 일이었다.⁴⁾

지배·피지배 관계에서 지배민족은 더욱 확고한

지배를 위해 피지배민족의 문화를 禁하고 지배민족의 것을 강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8세기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정치분쟁에서 영국은 스코틀랜드인의 정치적 야망을 봉쇄하기 위하여 그들의 민속의 상 착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정하였고⁵⁾ 중국 마지막 왕조인 淸朝에서 지배층인 만주족은 피지배민족인 漢族에게 변발과 만주복 착용을 강요함과 동시에⁶⁾ 지배층 스스로는 그들 고유의 언어와 풍습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데 북위에서는 지배민족인 선비족 전체에게 피지배민족인 漢族의 복식을 따르도록 하였다.

선비 고유의 문화를 일소하고 일방적으로 漢化시키려 한데서 비롯된 정체성 상실감 및 漢式 문벌귀족제도 도입으로 지위가 하락된 대다수 선비족의 갈등과 불만은 반란으로 표출되었고, 결국 북위왕조의 멸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최초의 異民族 왕조였던 북위시대에 통치권의 정통성과 영속성을 기하기 위해 일련의 漢化정책을 실시한 효문제의 개혁이념을 규명하고, 그러한 의지속에 실시된 복식개혁을 북위의 멸망과 관련시켜 고찰함으로써 고대 복식의 기능 및 복식문화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孝文帝的 개혁이념

본 장에서는 祭祀, 服飾, 言語, 官制, 姓族分定, 胡漢通婚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도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던 효문제 개혁정책의 기본 이념에 관해서 규명한다. 그 이념의 틀은 고대 漢族의 세계관이자 통치이념이었던 中華思想에서 찾을 수 있다.

1) 김진구, "예기의 복식문화(Ⅰ)-곡례를 중심으로", 복식, 14호, 1990.

2) 皇族과 諸官僚들의 冠服제도를 말하며, 이후 '服制'라 약칭한다.

3) 일본동아연구소편, "이민족의 중국통치사", 서병국 옮김, 서울:대륙연구소, 1991, pp.33-34

4) 田村實造, "北魏孝文帝의 정치" 『東洋史研究』 41-3, 1982, p.53

5) 이은영, 「복식의장학」, 서울:교문사, 1989, p.55

6) 淸世祖는 順治4년(1647) 전국 漢人에게 "10일 이내에 剃髮하여 복종을 증명하라"는 辨髮令을 내려 따르지 않는 자는 참수형에 처하였고 복장도 만주복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였다. (三本正年 編著 「カラスライド 東洋服飾史」 p.44)

中華思想이란 古來의 漢民族이 스스로를 ‘夏’, ‘華’, ‘中華’, ‘華夏’, ‘中州’, ‘中土’, ‘中國’ 등으로 칭함으로써 中華가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며, 문화가 가장 발달된 지역이라는 문화우월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지리적, 문화적인 두 요소 외에도 정치적,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여 中華의 정치적 지도자 ‘天子’가 그 德化를 보다 멀리 미쳐서 마침내 天下, 즉 전세계를 포괄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일종의 세계주의이기도 하다.⁷⁾ 이러한 이념적 제도의 구체상으로서, 고대 중국의 중심인 王畿를 중심으로 지리적 원근과 문화수준의 정도에 따라 세계를 몇가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尙書」 禹公編에 나오는 甸服, 侯服, 綏服, 要服, 荒服의 이른바 五服論이 그것이며, 「周禮」에 보이는 九服이라든지 六服도 같은 맥락의 세계관이었다.⁸⁾ 五服 규정은 王城에 가까운 지방은 문화의 수준이 높고 王者의 통제가 미치는 지역인 반면 멀수록 문화수준이 낮고 왕에 복속하는 정도도 미약한 오랑개 지역이라는 문화적 중화주의가 함축된 이념적 세계관인 동시에 五服·六服·九服의 제후들에게 각각 지위의 고하와 지역의 원근에 따라 朝權과 貢納의 횡수가 정해져 있어 실제로는 신분질서를 획정하고 세금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구분이기도 하였다.⁹⁾ 이 때 德化의 主體이며 중심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華夏 즉 漢族이었으며, 華夏의 대립 개념인 四夷, 즉 蠻, 夷, 戎, 狄은 지리적으로 네 주변에 위치하고, 문화적으로 열등

하며, 아직 天子의 德化를 받지 못한 人種, 土地를 의미하였다. 이로부터 중화사상은 때로 華夷思想이라고도 지칭된다.¹⁰⁾ 이 중화사상은 이후 역대 통일 중국 군주들의 제왕사상과 통치이념에서 이념화되고 정형화되었으며¹¹⁾ 儒家에서 말하는 ‘禮’는 華夷를 구분하는 기준, 바로 文化의 내용이다.¹²⁾ 이 통치이념을 현실화시키는 수단, 즉 禮를 실천하고 상하질서를 확립케 하는 중요한 통치수단의 하나가 服制였다고 할 수 있다.

북위의 6대 황제인 高祖 孝文帝는 그 자신이 ‘夷’에 속하는 선비족 출신이었지만 中原을 차지한 황제로서 고대 漢族의 통치이념이었던 中華사상을 도입하여 儀禮(禮敎)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¹³⁾ 太和14년(490) 수렴정정하던 馮太后¹⁴⁾가 사망하여 24세의 나이로 親政을 시작한 효문제는 太后를 위해 3년 喪服함으로써 스스로 역대 漢族 황제들이 행한 典禮를 실행에 옮긴다.¹⁵⁾ 太和15년의 제사에서 漢族 황제의 服制를 충실히 따르고, 그 해 11월 庚申에 황제가 친히 齊宮冠服과 郊祀俎豆를 살폈다는 기록¹⁶⁾에서 漢族의 대표적 禮 문화인 제사 절차에 성의를 다하는 효문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본격적인 漢化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도를 洛陽으로 옮겨 “變革”할 것을 계획한 효문제는 일족의 장로격인 任城王澄에게 “任城이 아니면 變化의 주체가 될 사람이 없다. 짐은 朝制를 개혁하려 한다”며 도움을 청한다. 變革이라는 것은 “移風易俗”을

7) 那波利貞, “中華思想” 『岩波講座 東洋思想』 9卷, 1936, pp.1-67, 박지훈 “송대 華夷論 연구”, 이대 박사학위 논문, 1990, p.100 에서 재인용

8)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서울:나남출판, 1997, pp.76-77

9) 장현근, “문화제국주의와 한국 : 中華주의의 허와 실”, 『전통과현대』, 1998 봄호

10) 那波利貞(1936), 전게서

11) 이춘석, 「중화사상」, 서울:교보문고, 1998 p.176

12) 小倉芳彦, “華夷思想의 形成” 『思想』, 503호, pp.23-32, 박지훈 전게서 p.103에서 재인용

13) 陳漢生, “也談北魏孝文帝的改革”, 『中國史研究』, 1982-4, p.33, 朴漢濟,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p.229에서 재인용

14) 『魏書』 卷13 皇后列傳 第1 文成文明皇后 馮氏

高宗 文成帝의 황후 馮氏로서 顯祖(현문제)와 高祖(효문제)때 聽政했던 馮太后를 말한다.

15) 川本芳昭, “北魏高祖의 漢化定策의 理解について”, 『九州大學 東洋史東論集』 9, 1981년 3월

16) 『魏書』 卷108(1) 禮志4(1) 第10 “太和十五年, 庚申, 帝親省齊宮冠服及郊祀俎豆”

뜻하고 이를 위해서 과거 武를 통한 정복정치의 時代¹⁷⁾ 都가 아닌 中華의 중심 낙양으로 천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¹⁸⁾ 황하 이남에 위치한 낙양은 漢, 魏, 西晉 등 漢族 역대 왕조의 故都였기 때문에 낙양 천도는 漢族의 古都에 근거를 두고 中華衣冠의 禮에 의해 국가의 체면을 바로 세우고¹⁹⁾ 漢族 문화의 계승자로 자부하려는 효문제의 의도가 포함된 것이었다.

낙양 천도를 전후하여 펼쳐지는 일련의 개혁정책들은 위와같은 효문제의 의도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이었으며 그 내용은 선비의 것을 없애고 中華의 것을 취하는 동화정책으로 祭祀, 服飾, 言語, 官制, 姓族分定, 胡漢通婚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도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 部族聯合祭였던 西郊祭天을 단계적으로 폐지한 것(太和16-18년)²⁰⁾, 胡服을 금지하고 漢族의 복식을 착용케 한 것(太和18년), 胡語를 금지하고 漢語를 사용케 한 것(太和19년)²¹⁾, 여러 차례의 官制개혁을 통해 북위 조정의 官制를 漢制로 정비한 것(太和17, 19, 22년)²²⁾ 등이 그것이다. 효문제의 漢化정책의 절정을 이룬 것은 선비族의 姓族分定(太和19년) 및 改姓(太和20년)이었다. 이는 南朝의 문벌귀족제도를 도입하여 胡

漢 모두에 대해 士庶의 구별과 家格의 상하를 황제가 정하여 그들을 정연한 질서속에서 통제하고자 한 것이며 나아가 훌륭한 가문간의 通婚을 통하여²³⁾ 胡漢간 완전한 융합을 꾀하려 한 것이었다.

개혁을 지시할 때마다 효문제는 中華의 禮를 강조한다. 복식개혁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禮敎가 우선이다”²⁴⁾ 라고 하면서 해당 관리를 책망하였고, 胡語 금지령을 내릴 때에는 “이같이 점차 습득해 가면, 풍속이 바뀌어 새로워질 것이다. 만약 옛 풍속을 계속하면, 몇 세대가 지난 후 다시 被髮之人이 될 것이다”²⁵⁾ 라고 하였는데, 이는 華夷개념에 기초한 孔子의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 ‘被髮之人’이란 漢族의 冠을 쓰지 않는 선비족 본래의 풍습인 즉 ‘夷’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다.

효문제의 개혁이념은 스스로 풍속을 바꾸어 “華”가 되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과 일정한 원칙을 지키며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²⁶⁾ 전통문화에 대한 보수력은 특별히 커서, 급진적 改變에는 반드시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데 효문제의 漢化는 규모도 컸고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²⁷⁾ 中華사상을 도입하여 禮敎국가를 건설하려 했

17) “代”는 太祖 道武帝가 諸部族의 대표자로 추대되어 稱帝할 때(386)의 國號이며, 중원의 華北지방을 통일한 후 “魏”로 바뀐다.(398) (『魏書』 卷2 帝紀第2 太祖道武帝)

18) 『魏書』 卷19中 景穆十二王列傳 第7中 任城王澄 “高祖心方革變... 이곳(平城)은 用武의 땅이라. 文治에 적합치 않으며 移風易俗은 진실로 어렵다할 것이다.”

19) 濱口重國, 『秦漢隋唐史の研究』 下卷 3部 第7, 『魏晉南北朝隋唐史概説』 東京大學出版會, 1966, p.864

20) 川本芳昭, 『北魏高祖의 漢化政策についての一考察』, 『東洋學報』, Vol.62, No3·4, 1981, pp39-49

서교제천은 북아시아 제민족에 공통되는 祭俗으로 『禮記』 등 漢人 왕조의 祭俗에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북위의 국가 제사로 제도화 한 것은 태조이며 그는 이 제속을 통해 부족연합으로서 일체감을 확인하고 높였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1) 『魏書』 卷7下 高祖紀 “太和十九年六月 己亥 詔不得以北俗之語言於朝廷 若有違者 免所居官”

朝廷에서 선비語를 비롯한 諸北方語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위반자는 관직을 박탈하였다.

22) 韓國磐, 『魏晉南北朝史綱』, 北京: 人民出版社, 1983, p.429

太和년간에 官制를 개혁하여 선비 고유의 관직명은 사라지고 모든 관직명이 漢式으로 바뀐다.

23) 濱口重國(1966), 전계서, p.863

24) 『魏書』 卷19中 景穆十二王列傳第7中 任城王

25) 『魏書』 卷21上 獻文六王列傳 第9上 咸陽王禧

26)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서울: 일지사, 1998, p.10

던 정책은 결국 선비족의 불만을 낳게 된다.

³⁰⁾ 또는 辮髮³¹⁾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別名이다.

III. 개혁 이전 북위(鮮卑族)의 복식

북위 복식개혁의 내용에 앞서 개혁 이전의 선비족 고유복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선비족을 포함한 북쪽 諸민족의 복식은 일반적으로 “胡服”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나 이것은 漢族의 입장에서 “오랑캐의 옷”이라는 개념으로 명명된 것이며 시대마다 “胡”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유의 복식명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漢族과 구별되는 선비 복식의 특징을 髮, 帽, 左衽, 上衣, 袴, 帶, 靴, 袴褶 등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고자 한다.²⁸⁾

1) 髮

고대 漢族은 비녀(笄 또는 簪)를 이용하여 머리를 정리하고 冠을 썼던 반면 북방 소수민족들에게는 冠冕의 制가 없었으며 披髮, 辮髮, 혹은 剪髮하였다. 그래서 머리모양은 漢族과 주변 민족을 구별하는 표시가 되기도 하였다. 탁발 선비족은 索頭²⁹⁾ 혹은 索虜 등으로 불리웠는데 이것 역시 선비족이 머리를 被髮

2) 帽

선비족에게는 漢族의 冠이라 할 만한 것은 없었지만 帽가 있었다. 당시 南朝였던 齊나라 永明年間에 王融의 上書 내용 중, “方帽”는 탁발 선비를 형용한 말로서 鮮卑가 帽를 썼다는 증거이며 모래와 눈 등을 막는 용도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²⁾ 또 들에서 썼던 “大帽”라는 것을 北魏의 朝臣들까지 착용하였는데 唐 초기에도 바람과 먼지를 막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한다.³³⁾ 『通典』에서 선비족 突騎帽의 특징으로 “垂裙”을 들고 있는데,³⁴⁾ 沈從文에 의하면 裙이란 器物의 下脚 아래로 늘어진 邊沿(가장자리)을 가리키므로³⁵⁾, 帽에 자락이 드리워져 있음을 말한다. 이 裙 때문에 선비족 帽은 신체적 결함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³⁶⁾

3) 左衽

북방 민족은 옷의 여밈 방향에 있어서도 漢族과 구별되었다. 孔子가 “管仲이 아니었으면 被髮左衽 하였을 것”³⁷⁾이라고 말한 것은 춘추시대 齊나라 管

27) 孫同勳, 「拓跋氏의 漢化」, 台北: 國立臺灣大學文史叢刊, p.139

28) 중국복식사에서 남북조시대는 주요변혁기라 할 수 있는데, 이는 漢族 본래의 ‘上衣下裳’형식과는 다른 ‘上衣下褲’형식이 출현하여 상하를 막론하고 보편화되는 계기가 된 시기이기 때문이며 그 대표적인 원인이 北朝 복식의 영향이다. 그러나 「舊唐書」 輿服志에 ‘北朝에는 戎夷의 制가 섞여 있었다고 한 바와 같이 후대에 영향을 미친 北朝의 복식 즉, ‘胡服’이라고 할 때는 서역의 영향도 포함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北族 선비 고유 복식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9) 『宋書』 卷95 列傳 第55 索虜 “索頭 즉 오랑캐의 성은 탁발씨이다.”

30) 『南齊書』 卷57 列傳 第38 魏虜 “魏는 흉노족이며 탁발씨다. 被髮左衽하였으므로 索頭라고도 한다.”

31) 『資治通鑑』 魏紀一 文帝 黃初 2年 “焮이 실권을 잃고, 五胡가 난립하다가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南朝에서는 북을 索虜라 하였다”에 대한 胡三省의 注 “索虜 즉, 북쪽 사람들이 辮髮하였으므로 南朝에서 索頭라고도 하였다.”

32) 『南齊書』 卷47 列傳 第28 王融傳 “冠方帽則犯沙淩雪, 服左衽即風馳鳥逝”

33) 『事原實錄』 “大帽野老之服, 至後魏朝臣皆戴之, 唐初以穀爲之, 以隔風塵”,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 증세편, 문광회역, p.85에서 재인용

34) 『通典』 “後魏威著突騎帽, 如今胡帽垂裙覆帶, 蓋索髮之遺象也”

35)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1992, p.195

36) 『魏書』 辛紹先傳 “辛紹先이... 3년동안 단 것을 먹지 않고, 머리를 빗지 않으니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항상 垂裙帽을 쓰고 있었다”

37) 『論語』 憲問 第14 “子曰, … 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

仲이 桓公을 도와 북방 오랑캐를 쫓아 내지 못했더라면 그들의 지배를 받아 오랑캐와 같이 되었을 것이라는 뜻으로 “被髮左衽”은 북방 민족의 풍속을 표현한 것이다. 북방 민족의 하나였던 선비족 역시 같았으니³⁸⁾ 이는 齊나라 王融의 上書에서 선비를 “左衽”이라고 표현한데서도 알 수 있다.³⁹⁾

4) 上衣

북위의 효문제는 太和18년에 선비족 복식을 漢식으로 개혁하는데, 그 후 선비족 여자들이 여전히 고유복식인 “夾領小袖”와 “小襦襖”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지역 관리들을 책망한다.⁴⁰⁾ 한편 河南國은 鮮卑에서 발원하였으므로 그들의 “小袖袍” 역시 선비복으로 볼 수 있다.⁴¹⁾ “夾領小袖”, “小襦襖”, “小袖袍” 등에는 漢族 복식의 廣袖, 大袖와는 구별되는 선비복의 공통된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즉 소매가 넓고 풍성하게 입은 漢族과는 달리 선비족은 소매가 좁고 밀착된 상의를 입었으며, 이는 남북의 기후차에서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5) 袴

고대 漢族 복식의 기본형식은 “上衣下裳”이며 裳

이나 裙 속에 袴를 입었는데, 옛날의 袴는 오늘날 중국의 套褲⁴²⁾와 같은 開襟袴였음이 출토실물에서 확인된다.⁴³⁾ 북위의 世祖(太武帝)가 南宋의 太祖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 선비족은 본래 말을 타는 민족이라 하였으니⁴⁴⁾ 이는 그들이 반드시 승袴를 입어야 했던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선비에서 발원한 吐谷渾이 입은 “小口袴”⁴⁵⁾에서 바지 통은 좁았고, “國人(선비)은 본래 羊皮袴를 입는다”⁴⁶⁾는 太武帝의 말에서 주로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6) 帶

布帛帶를 맨 漢族과 달리 북방민족은 帶鉤가 달린 帶를 매었다. 帶鉤는 “師比”, “犀毗”, “鮮卑” 등으로 불려⁴⁷⁾ 선비족과의 관련성을 짐작케 한다. 張昞의 注에도 “鮮卑郭洛帶, 瑞獸名也, 東胡(선비)好服之”⁴⁸⁾라고 하여 선비족이 착용한 것은 확실한데 “鮮卑”와 “瑞獸”의 관련성 해석에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呂一飛는 東胡인이 帶鉤에 “神獸”의 형상을 주조하였기 때문에 帶鉤를 鮮卑라 칭하게 되었다고⁴⁹⁾, 白鳥庫吉은 鮮卑는 瑞祥의 의미이고 帶鉤에 鮮卑獸의 형상을 鏤刻하였기 때문에 帶 혹은 鉤를

38) 『南齊書』, 卷57 列傳 第38 魏虜 “魏虜, 匈奴種也, 姓托跋氏. … 被髮左衽, 故呼爲索頭”

39) 『南齊書』, 卷47 列傳 第28 王融傳 “冠方帽則犯沙淩雪, 服左衽即風馳鳥逝”

40) 『魏書』, 卷21上 獻文六王列傳 第9上 咸陽王禧 “어제 부인의 옷을 보니 夾領小袖를 입었다. 내가 詔를 내린지 비록 3년이 채 안되었으나 이미 해를 넘겼은즉 경들은 어찌하여 詔를 위반하도록 놔두는가?”

『魏書』, 卷19中 景穆十二王列傳 第7中 任城王澄 “짐이 어제 성에 들어와 수레 위의 부인을 보니 帽을 쓰고 小襦襖를 입고 있었다. 이러한데 尙함는 어찌하여 감찰하지 않는가?”

41) 『梁書』, 卷54 列傳 第48 諸夷 河南王傳 “河南王者, 其先出自鮮卑慕容氏…著小袖袍”

42) 바지 위에 덧입는 것으로, 바지 가랑이만 있는 바지 (『中韓辭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43) 王維堤, 『衣冠古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p.123

44) 『宋書』, 卷95 第55 索虜, “復何知我鮮卑常馬背中領上生活”

45) 『梁書』, 卷54 列傳 第48 諸夷 河南王傳 “河南王者, 著小口袴”

46) 『資治通鑑』 宋紀7 文帝 元嘉27년 “秋七月, 魏主(太武帝)曰, “國人本著羊皮袴, 何用綿帛”

47) 『後漢書』, 卷94上 匈奴傳 第64上 漢 文帝가 흉노 선우에게 보낸 선물 가운데 “黃金犀毗一”이 나오는데, 顏師古 注에 “犀毗는 胡의 帶鉤이다. 鮮卑, 師比라고도 하는데 모두 같은 것이다.”라 하여 “鮮卑”가 분명히 胡帶의 帶鉤임을 증명하고 있다.

48) 『後漢書』, 卷94上 匈奴傳 第64上 “黃金犀毗一”에 대한 張昞의 注

49) 呂一飛, 『胡族習俗與隋唐韻』,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4, pp.20-21

鮮卑라고 한 것으로 추측한다⁵⁰⁾고 하였다.

7) 靴

履나 鞋을 신었던 漢族과 달리 초원에서 말을 달리던 북방민족은 靴를 신었다. "(선비족)永은 長安으로 갔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부부가 항상 시장에서 靴를 팔았다"⁵¹⁾는 기록에서 선비족 역시 靴를 신었음을 알 수 있으며, 北齊시대에 발굴한 북위묘의 "靴"가 이를 증명한다.⁵²⁾

8) 袴褶

袴褶은 북방민족 복식의 영향을 받아 출현한 "上衣下褲"식 복장이다.⁵³⁾ 戰國시대 趙의 무령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어⁵⁴⁾ 戎服 등으로 착용되다가 後漢 말부터 袴褶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으며⁵⁵⁾ 착용 범위도 넓어지게 되었다. 선비족 입장에서 그들의 고유복식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中原에 전래되면서 漢族복식의 영향을 받아 형태면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 小袖가 廣袖로, 左衽이 右衽으로 바뀌고, 大口袴가 출현하여⁵⁶⁾ 무릎 아래를 묶어(縛袴)⁵⁷⁾ 착용하게 된 것 등이 그것이다. 남북조시기에

袴褶이 유행하여 남조에서는 주로 응복과 여행복⁵⁸⁾으로, 북위에서는 일상복, 朝服, 祭服으로까지 착용되었다.

일상복으로 착용된 예는 "남은 가족으로 된 袴褶"⁵⁹⁾과 "白袖袴褶"⁶⁰⁾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나며, 朝服으로 착용된 예는 太和14년에 사망한 馮太后 弔問 장소에서 남인에게는 戎服이며 북인에게는 朝服인 袴褶의 조문복으로서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 北人과 南人간에 벌어진 논란에서⁶¹⁾ 알 수 있다. 또한 太和15년 이전에 군신들이 冬朝賀때 袴褶을 입은 「資治通鑑」⁶²⁾의 기사에서도 고승이 朝服으로 착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북위에서 袴褶은 祭服으로도 착용되었는데, 「南齊書」에 太和16년 제사에서 효문제와 공경들이 戎服을 입었다고 기록한 것은 漢人에게는 戎服인 袴褶을 입었다는 내용이며, 다른 기사에서 그것이 袴褶임이 확인된다.⁶³⁾ 그런데 이 해는 효문제 親政 3년째로서, 이미 漢化정책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한 해 전인 太和15년 다른 제사에서는 祭服을 착용하였던 것⁶⁴⁾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는 아직까지 효문제 개인의 노력일 뿐 제도로 정비된 것은 아니

50) 白鳥庫吉, 「東胡民族考 1」, 史學雜誌, 21-4호, pp.4-7, 박춘순, "바치고" p.81에서 재인용

51) 「魏書」卷95 列傳 第83 徙何慕容永傳 "(慕容)永徙于長安, 家貧, 夫妻常賣靴于市"

52) 「北齊書」卷12 列傳第4 孝昭六王 樂陵王百年 "後主때 九院을 二十七院으로 하면서 시신 하나를 발굴했는데 緋袍金帶, 一髻一解, 一足靴가 있었다."

53) 王國維, 「觀堂集林」卷 제18 胡服에서 "其服爲上褶下袴之服"라고 하였다.

54) 「史記」趙世家

55) '袴褶'이라는 용어는 吳志 呂範傳 注에 인용된 江表傳에 처음 보인다. (王國維 「胡服考」)

56)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p.131

57) 「宋書」卷70 列傳第30 袁淑 "淑及左右 使以縛袴"

58) 王國維, 「觀堂集林」卷 제18 胡服考

59) 「魏書」卷52 列傳第40 胡叟

60) 「魏書」孝義傳

61) 「魏書」卷79 列傳 第67 成淹

62) 「資治通鑑」齊紀三 武帝 永明9년(북위 太和15년) "魏의 옛 제도는 군신이 冬朝賀에 袴褶을 착용하였다."

63) 「南齊書」卷57 列傳第38 魏虜 "齊 永明10年(북위 太和16년) "宏(孝文帝)西郊, 卽前祠天壇處也. 宏與公卿從二十餘騎 戎服繞壇... 明日, 復戎服登壇祠天"

「太平御覽」卷695 袴褶條 "盧主南郊, 著皇班褶緋袴"

64) 「魏書」卷108(1) 禮志4(1) 第10 "太和十五年...十一月己未朔 帝釋禱祭太和廟, 帝袞冕"

있기 때문에 여러 제사 의식에서 胡漢의 복식이 혼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漢族은 고대로부터 복식에 상하등급 구별 및 사회 예의의 기능을 강하게 반영시켰던 반면 북방민족인 선비족은 그렇지 않았다. 太祖때 冠服을 제정하여 복식에 상하귀천의 구별을 둔 것은 정치등급원칙을 복식에 體現하여 皇權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는 그런 것이 없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⁶⁵⁾ 위의 기사들을 근거로하여 袴褶이 북위에서 朝服으로 제정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나⁶⁶⁾ 제도로 명문화된 것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규정된 朝服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漢式 服制가 마련되기 전까지 祭祀, 朝賀 등의 의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漢式으로 약간 변형된 고유 복식인 袴褶을 착용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림1〉大同 雲岡石窟 第17窟南壁東龕男供養人像

이상과 같은 사실은 大同 雲岡石窟 縣隴五窟(16-20굴)의 공양인像에서도 확인된다. 縣隴五窟은 北魏 和平年間(460-465)에 건축되었으므로⁶⁷⁾ 공양

인의 모습에서 효문제 개혁 이전의 선비 복식을 볼 수 있다. 裙이 있는 帽, 左衽, 小袖 上衣, 袴, 靴를 착용하고 있다.

IV. 북위의 복식개혁

1. 효문제 이전의 漢式 服制

팝이 망하고 五胡十六國 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中原에서는 禮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가⁶⁸⁾ 북위가 중국 북부를 통일하고 나서야 비로소 전통 禮制에 따른 服制를 정비하게 된다. 太祖 道武帝때부터 漢式 服制 제정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불완전하였고, 高祖 孝文帝때의 服制 제정 및 복식개혁령 이전까지는 제도 자체에 머물렀을 뿐 실제로 실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漢式 服制 제정 기록을 순차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天興6년(403) 有司에 詔하여 처음으로 冠冕을 제정하였고 각 品秩에 따라 구별하였으나 옛 제도를 모두 갖추지는 못했다.⁶⁹⁾
 - 太和10년(486) 정월에 황제가 처음으로 袞冕을 착용하고 朝饗萬國하였다. ... 그 해 4월에 황제가 처음으로 法服을 입고 西郊에 제사하였다.⁷⁰⁾
 - 太和10년(486) 여름4월 처음으로 五等公服을 제정하였다. ... 그 후 8월에 尙書 五等品爵 이상에게 朱衣, 玉佩, 大小組綬를 주었다.⁷¹⁾
- 최초의 漢式 服制 제정은 太祖 道武帝 제위 18년

65) 呂一飛(1994), 전개서, pp.33-34

66)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 中世篇, 문광회역 p.112 : 原出淑人, 『漢六朝의 服飾』, p.121

67) 呂一飛(1994), 전개서, p.7

68) 『隋書』 卷11 志第6 禮儀6, “自晉左遷 中原禮儀多缺”

69) 『隋書』 卷11 志第6 禮儀6 “天興六年, 詔有司始制冠冕, 各依品秩, 以示等差, 然未能皆得舊制”

『魏書』 卷108(4) 禮志4(4) 第13 “天興六年, 詔有司制冠服, 隨品秩各有差, 時事未暇, 多失古禮”

70) 『魏書』 卷7下 高祖紀第7下, “太和十年 春正月 癸亥朔, 帝始服袞冕, 朝饗萬國 ... 太和十年 四月, 帝初以法服御齋, 祀於西郊”

71) 『魏書』 卷7下 高祖紀第7下, “太和十年 夏四月 辛酉朔, 始制五等公服...八月乙亥, 給尙書五等品爵以上 朱衣, 玉佩, 大小組綬”

제 되던 해(天興6년)에 이루어지는데, 같은 내용에 대해 「魏書」에서는 “그 때는 여유가 없어 옛 제도를 많이 빠뜨렸다”고 하였으니 당시는 증원 통치국가들을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제도를 마련하긴 하였지만 충분치 않았으며 제대로 실시되지도 않았다고 본다.

世祖때에는 江北을 통일한 뒤 郡縣制 지배를 통한 漢式 專制지배체제 확립에 노력하였으나 견고한 호족집단의 연합위에 세워진 북위는 여전히 호족국가적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다. 이를 「南齊書」에서는 “世祖 이후 점차 華風으로 통치하여 胡風의 國俗과 서로 어지럽게 섞여있었다”⁷²⁾라고 기록하고 있다.

太和10년(486)에 이르러 황제가 처음으로 衮冕을 착용한다. 太和10년은 효문제 제위기간이긴 하지만 사실상 어린 나이에 등극한 효문제 대신 文成帝의 황후 馮太后가 16년째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 때에 와서야 효문제가 처음으로 漢式 전통의례에 입각하여 황제의 禮를 수행한 것이었다.⁷³⁾ 효문제가 황제로서 朝饗萬國한 것이 처음이라는 뜻이므로 북위 황제의 衮冕착용이 처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전 황제들의 衮冕 착용 기록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Ⅲ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太和16년 제사에서 효문제가 袴褶를 착용하였으므로 이 때의 황제 衮冕착용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황제가 衮冕을 착용

한 같은 해 4월 처음으로 五等 公服을 제정하였다. 馮太后 집정기에 황제의 衮冕착용과 五等公服 제정이 이루어진 것은 그녀 역시 漢族 전통 제도를 통해 帝權을 강화하고 지배체제를 확립하려 한 것의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위의 역대 황제들이 최초의 이민족 왕조로서의 선비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고심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마침내 효문제에 의해 본격적인 漢化정책이 시행되기에 이른다.

2. 효문제 이후 전면적 복식 개혁

太和14년(490)에 馮太后가 사망하여 효문제의 親政이 시작된다. 太祖때 만든 제도는 粗略할 뿐 아니라 잘못되고 누락된 것이 많기 때문에 효문제가 옛 것을 살펴, 前王을 斟酌하고 尙典을 가려 뽑아 제도를 정비하였다.⁷⁴⁾ 특히 이 太和년간의 冠服 제정에는 南朝에서 온 劉昶, 蔣少游 두 사람도 참여하게 하였으며 6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비록 南人이라고는 하지만 둘 다 南朝 衣冠에 숙달한 것은 아니어서 少游傳에 의하면 두 사람의 뜻이 서로 달라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⁷⁵⁾ 服制는 周代로부터 漢, 魏, 晉으로 이어져 내려온 제도를 따라 百僚六宮이 각각 차등있게 제정되었다.⁷⁶⁾ 특히 여자 服制는 周代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⁷⁷⁾ 漢·晉보다도 먼 周禮를 추구하고자 했던 효문제의 의도가 잘 반영되

72) 「南齊書」卷57 魏虜傳 “佛狸(世祖)以來 稍統治華風 胡風國俗 雜相揉亂”

73) 효문제 즉위년은 皇興5년(471), 死去한 해는 太和23년(499)인데, 「北史」(卷3 太和十五年 春正月 丁巳)에서 太和15년에 황제가 비로소 聽政하였고, 10여년간 大政에 임하였다고 했으므로 이 때 朝饗萬國한 이후로도 太和14년에 馮太后가 死去하기까지는 실권을 갖지 못했다.

74) 「魏書」卷108(1) 禮志4(1) 第10 “太祖南定燕趙, …互舉但事多粗略, 且兼闕遺. 高祖稽古, 率由舊則, 斟酌前王, 擇其令典, 朝章國範, 煥乎復振”

75) 「魏書」卷91 列傳 藝術 蔣少游, “詔尙書李沖與馮誕, …等議定衣冠於禁中, 少游巧思, 令主其事, 亦訪於劉昶. 二意相乖, 時致爭競, 積六載乃成, 始班賜百官”

76) 「魏書」卷108(4) 禮志 4(4) 第13 “至高祖太和中, 始考舊典, 以制冠服, 百僚六宮, 各有差次. 早世升遐, 猶未周洽”

77) 「隋書」卷11 志第6 禮儀6. 皇后의 服制는 「周禮」天官冢宰, 內司服의 제도를 따라 禕衣, 綈狄, 闕狄, 鞠衣, 展衣, 褕衣의 六服으로 제정되어 있다.

어 있다.⁷⁸⁾ 이 때 누락된 五時朝服제도는 肅宗 孝明帝 때 제정된다. 肅宗 熙平元年(516) 9월에 侍中 儀同三司 崔光이 “五時朝服 제정”을 청하였고 이듬해인 熙平2년에 太傅 등이 다시 아뢰어 제정함으로써 북위의 服制가 완성되기에 이른다.⁷⁹⁾ 따라서 북위 服制의 대부분은 효문제에 의해 太和년간에 제정된 것이며 五時朝服에 관련된 내용은 熙平년간에 보완,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효문제는 스스로 술선하여 袞冕을 착용하였으며, 선비족 관리들에게도 漢式 朝服 착용을 요구하였고, 이어서 선비족 전체의 복식을 漢式으로 개혁하기에 이른다.

1) 皇帝의 袞冕

「魏書」禮志 太和15년 11월 기사⁸⁰⁾를 통해 효문제는 철저히 漢式 衣冠을 준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太和15년 11월 己未朔, 황제는 제사시 袞冕을 입고, 함께 제사하는 사람은 朝服을 입었다. 그리고 황제는 黑介幘, 素紗深衣로 拜山陵하고 환궁하였다.
- 癸亥冬至에 圓丘에 제사하려고, 황제는 袞冕劍舄하였고, 侍臣은 朝服하였다.

- 甲子에 황제는 袞冕을 입고 태화묘에 제사하고 태화전에서 朝群官하였다. 그리고 황제는 通天冠, 絳紗袍를 입고 臨饗禮 하였다.

- 丁卯에 황제는 袞冕을 입고 태화묘에 제사하였고 百官이 陪從하였다.

즉 4번의 제사의식이 있었는데 매번 효문제는 漢式 전통 祭服인 袞冕으로 제사하고, 제사가 끝난 뒤에는 역시 漢式 服制인 黑介幘 또는 通天冠으로 갈아 입었다.⁸¹⁾ 또 太和19년 11월에는三公과 太常의 袞冕을 각각 袞冕八章과 鷩冕六章으로 정하였는데⁸²⁾ 이는 「隋書」에 명기된 북위의 服制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⁸³⁾

이러한 袞冕제도가 정착되어 황제의 즉위복으로 착용되기 이르니, 515년 世宗이 죽은 후 태자 숙종이 즉위할 때 “태위 최광이 璽와 綬를 올리니 숙종이 이를 받고, 황제 袞冕服을 착용하고 태극전에 올랐다”⁸⁴⁾고 하였다.

2) 百官의 冠服

服制가 마련되기 이전에 북위의 百官들은 그들의 고유복식인 袴褶을 朝服으로 착용하였다. 「資治通鑑」에 “魏의 옛 제도는 군신이 冬朝賀에 袴褶을 착용하였으며 이를 小歲라 하였는데, 丙戌에 이를 擺

78) 「魏書」, 卷21上 獻文六王列傳 第9上 咸陽王禧

79) 「隋書」, 卷11 志第6 禮儀6, “熙平二年 太傅…等 奏定五時朝服 準漢故事 五郊衣幘 各如方色焉”

80) 「魏書」, 卷108(1) 禮志4(1) 第10 “太和十五年, 十一月己未朔, 帝釋禪祭於太和廟. 帝袞冕, 與祭者朝服. 既而帝冠黑介幘, 素紗深衣, 拜山陵而還宮. 庚申, 帝親省齊宮冠服及郊祀俎豆. 癸亥冬至, 將祭圓丘, 帝袞冕劍舄, 侍臣朝服. … 甲子, 帝袞冕辭太和廟, 臨太華殿, 朝群官. 既而帝冠通天, 絳紗袍, 臨饗禮. … 丁卯, 遷廟, 陳列冕服, 帝躬省之. 既而帝袞冕, 辭太和廟, 之太廟, 百官陪從.”

81) 「隋書」, 卷11 志第6 禮儀6, “乘輿는 四時祭廟, 圓丘, 方澤, 明堂, 五郊, 封禪, 大雩, 出宮行事, 正旦受朝, 臨軒拜王公. 袞冕服. 還宮시 通天冠을 착용한다. … 拜陵시에는 黑介幘, 白紗中單을 착용한다”
皇帝의 服制는 平冕黑介幘, 通天金博山冠, 進賢五梁冠, 遊遊五梁冠, 武弁, 白帽으로, 皇太子의 服制는 平冕黑介幘, 進賢三梁冠, 遊遊三梁冠, 武弁, 白帽으로 제정되어 있다.

82) 「魏書」, 卷108(1) 禮志4(1) 第10 “太和十九年 十一月 癸未, 詔三公袞冕八章, 太常鷩冕六章, 用以陪薦”

83) 「隋書」, 卷11 志第6 禮儀6, “諸公卿은 平冕黑介幘, 靑珠로 旒를 하는데 上公은 9,三公은 8, 諸卿은 6이며, 組纓 하는데 색은 綬와 같다. 옷은 모두 玄上纁下이다.三公은 山龍8章으로 皇太子보다 한등급 아래이며, 九卿은 藻火6章이다”

84) 「魏書」, 卷108(4) 禮志4(4) 第13 “太尉光奉策進璽綬, 肅宗跪受, 服皇帝袞冕服, 御太極殿”

하였다”⁸⁵⁾고 하였고, 小歲를 파한 이유에 대해 「南齊書」에 “宏(효문제)이 詔하기를, 冬朝賀시에 성문화되지 않은 袴褶으로 事하는데 이는 禮가 아니다. 만약 寒朝服을 하기가 번거로우면 지금부터 小歲賀를 罷하니 年초에 一賀만 하라”⁸⁶⁾고 하였다.

이것은 太和15년 11월 丙戌일의 일이었으므로⁸⁷⁾, 같은 달 27일 前⁸⁸⁾이었던 己未일의 제사에서 효문제를 돕는 群臣들의 “朝服”은 여전히 袴褶이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즉 효문제 자신은 袞冕을 착용하고 제사의 禮를 다하는데, 옆에서 제사를 돕는 群臣들은 여전히 선비족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효문제는 朝賀를 한 번으로 줄여 선비족 관리들이 번거롭게 여기는 漢式 朝服 착용 횟수를 줄이면서까지 漢式 服制를 정착시키려 한 것이다.

또 효문제는 官制를 개혁한 후 관품에 따라 冠服을 나누어 준다. 太和15년(491) 刺史이상에게 衣冠을 내리고⁸⁹⁾ 太和19년 12월에는 광국당에서 군신을 引見하여 冠服을 주었다.⁹⁰⁾ 이는 漢式 服制에 의해 상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⁹¹⁾ 한편 7품이상은 朝服으로, 그 이하는 8품이상-流外4품이상, 流外5품이하-9품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公服으로 제정하였는데⁹²⁾ 이는 품급별 명칭이지 朝服과 公服이 이

때부터 구별·제정되기는 어려웠다고 본다.

3) 선비족 전체의 복식 개혁 및 개혁실패

태조 도무제이래 부분적으로나마 冠冕 제정, 五等公服 제정 등이 있었으나 효문제는 親政을 시작한 후 漢人 관료들을 동원하여 본격적으로 漢式 服制를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남녀를 불문한 선비족 전체의 복식을 개혁하기에 이른다.

● 太和18년(494) 12월, 복식 제도를 개혁하였고, 엄히 경계하여 지키도록 하였다.⁹³⁾

이는 선비족 士民의 胡服 착용을 금한 것⁹⁴⁾이며, 이 해는 복위가 증원 북부 통치를 시작한지 109년째 되는 해이므로 한 세기가 넘도록 선비족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일반인에게까지 漢式 복식을 착용하게 한 것은 실로 개혁이라 할 만하다. 개혁령 이후 여전히 고유복식을 착용한 부인을 본 효문제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 관리들을 책망하였을 때, 任城王이 “(本風으로) 입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습니다”라고 변론하자 효문제가 “任城은 전체가 (漢族복식을) 입도록 승하지 않았는가?”라고 호통을 쳐 군신이 마침내 免官謝罪하였다.⁹⁵⁾

그러나 효문제의 개혁의지와는 달리 복식개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前述한 바와 같이 改服之

85) 「資治通鑑」齊紀三 武帝 永明9년(491) “魏舊制 群臣季冬朝賀 服袴褶行幸 謂之小歲；丙戌，詔罷之”

86) 「南齊書」卷57 列傳 第38 魏虜 “季冬朝賀，典無成文，以袴褶事非禮敬之謂，若置寒朝服，徒成煩濁，自今罷小歲賀，歲初一賀”

87) 「魏書」卷7下 高祖紀第7下，“太和十五年 十有一月 丙戌 初罷小歲賀”

88) 김혜원, 「밀알만세력」, 서울:밀알, 1986

89) 「魏書」卷7下 高祖紀第7下，“太和十五年 十有二月 癸巳，領賜刺史以下衣冠”

90) 「魏書」권7下 高祖紀第7下，“太和十有九年 十有二月 甲子，引見羣臣於光極堂，班賜冠服”

91) 「隋書」卷11 志第6 禮儀6, 百官의 服制는 遠遊三梁冠, 進賢冠, 委貌冠, 武弁, 法冠, 高山冠, 却非冠, 鷖, 幘과 佩飾品으로 綬, 鞶囊, 佩劍, 佩玉, 笏, 紫紵, 白笏 등이 품급별로 제정되었다.

92) 「隋書」卷11 志第6 禮儀6, “7품이상(朝服)은 冠/幘 각1, 絳紗單衣, 白紗中單, 卓領袖, 卓襪, 革帶, 曲領方心, 蔽膝, 白筆, 烏, 袜, 兩綬, 劍佩, 簪導, 鈎鍔로 具服이라 한다. 8품이하-流外4품이상(公服)은 冠, 幘, 紗單衣, 深衣, 革帶, 假帶, 履袜, 鈎鍔로 從省服이라 한다. 流外5품이하-9품이상(公服)은 襟衣를 입는다”

93) 「魏書」권7下 高祖紀第7下，“太和 十有八年……十有二月……壬寅，革衣服之制，癸卯，詔中外戒嚴”

94) 「資治通鑑」齊紀五 高宗明皇帝, “建武, 魏主欲變易舊風, 壬寅, 詔禁士民胡服, 國人多不悅”

95) 「魏書」卷19中 景穆十二王列傳第7中 任城王

詔가 반포된 후 선비족 여자들이 여전히 고유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로잡지 않은 해당지역 관리들을 책망한 사건이 「魏書」 곳곳에서 확인된다.⁹⁶⁾ 任城王傳에서의 부인은 帽을 쓰고 小襦襖을 입었다고 했고, 咸陽王傳에서의 부인은 夾領小袖를 입었다고 했는데, 帽, 小襦襖, 夾領小袖 모두 선비족의 복식이기 때문에 효문제가 大奴하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익숙해 진 복식을 하루아침에 漢人の 복식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高道穆傳에는 僕射 尒朱世隆이 入朝했을 때 衣冠이 의례에 맞지 않아 高道穆이 이를 규탄했다는 기사가 있다.⁹⁷⁾ 尒朱는 代人이므로 북쪽 복식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당연하지만, 入朝하는 관리입에도 불구하고 개혁된 服制를 따르지 않은 것은 효문제의 복식개혁이 선비족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낙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책들로부터 소외된 舊都의 선비족들은 효문제의 풍속 改變에 대해 저항과 불만을 가지게 되어 여전히 선비복식을 착용하였던 것이다. 즉 효문제의 복식개혁은 풍속을 바꿈으로서 胡漢 민족상의 구별을 제거하고 결국 북위 왕조의 영속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실시범위는 대개 낙양으로 옮긴 선비족 관리들에게 한정된 것이었다. 「舊唐書」에서도 “後魏, 北齊의 興服은 기이하고 이상스러웠는데 隋가 천하를 통일한 후 비로소 다시 옛 의례로 돌아갔다”⁹⁸⁾고 한 바와 같이 북위는 여러 대에 걸쳐 漢式 服制가 제정되었고 특히 효문제는 服制제정 및 실시, 선비족 전체의 복식 개혁에 이르기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복식개혁정책을 폈지만

개혁 실패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V. 북위의 멸망과 후속 왕조의 선비화 경향

이제 북위 말에 일어난 대표적인 두 가지 반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반란의 원인이 효문제의 개혁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太和20년의 난은 선비 고유의 언어·복장·변발 폐지 및 낙양천도 등 효문제의 漢化정책에 반발하여 선비계 상류층에서 일어났으며, 北鎮의 난은 효문제 死後 계속된 漢化정책으로 인해 선비계 중·하류층 사람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일어난 것으로, 북위를 멸망으로 몰아간 난이다. 효문제의 개혁정책에 대한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후속 정권에서의 反漢化정책으로 이어져 복식에서도 선비복식이 성행하게 된다.

1. 북위의 멸망

1) 孝文帝 때 태자를 중심으로 한 모반

효문제는 “移風易俗”을 염두에 두고 代都 平城에서 中華의 중심지 洛陽으로 천도한다. 낙양천도를 알리는 詔를 내린 것은 太和18년 2월이었으며 천도 사업이 완결된 것은 太和19년 9월이었다.⁹⁹⁾ 천도 직후인 太和20년 황태자 恂과 陸叡, 穆泰, 元丕 등 선비계 상류층 사람들에 의해 모반이 일어난다. 태자 恂은 천도에 반대하고 효문제가 준 衣冠을 破捨해 버린 후 변발(編)을 하고 左衽을 입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선비복식을 입었다는 내용이며¹⁰⁰⁾ 이 일로

96) 「魏書」, 卷19中 任城王澄 “見車上婦人冠帽而著小襦襖者”

「魏書」, 卷21上 咸陽王禧 “昨望見婦人之服, 仍爲夾領小袖”

97) 「魏書」, 卷77 列傳第65 高道穆 “僕射尒朱世隆當朝權盛, 因內見衣冠失儀, 道穆便即彈糾”

98) 「舊唐書」, 卷45 志第25 興服 “後魏, 北齊, 興服奇詭, 至隋氏一統, 始復舊儀”

99) 田村實造(1982), 전거서, pp.50-51

100) 「南齊書」, 卷57 列傳第38 魏廢 “宏(孝文帝)初徙都, 恂(太子)意不樂, 思歸桑乾(舊都), 宏制衣冠與之, 詢縞毀裂, 解髮爲編服左衽…宏徒詢無鼻城, 在河橋北二里, 尋殺之, 以庶人禮葬…是歲, 僞太和二十年也.”

인해 태자는 庶人으로 廢하여진다.¹⁰¹⁾ 太和20년 12월 병인(8일)에 태자가 폐위되었는데 이를 후에 穆泰 등에 의해 다시 반란이 일어난다.¹⁰²⁾ 가담자이면서 舊都인 代都平城의 총책임자였던 元丕는 本風 즉 胡俗을 좋아하여 개혁을 따르지 않고 常服 즉 선비족의 일상복을 입었다고 한다.¹⁰³⁾ 결국 태자는 죽임을 당하고, 모반 가담자들도 처벌된다.¹⁰⁴⁾ 이 반란은 太和19년부터 구상되었고 참여했던 수도 100여 명정도가 되었으나¹⁰⁵⁾ 北族전체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중하층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했고 가담자간의 결속력도 약하여 쉽게 진압되고 그 후 정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비록 실패로 끝나긴 하였지만 황태자를 비롯한 지배민족의 상류층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이 모반의 원인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한가지는 선비 고유의 언어·복장·변발의 폐지·낙양천도 등 생활전반에 걸친 개혁에 대한 불만이다.¹⁰⁶⁾ “지금 代都에서 온 사람은 모두 본국 代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임성왕澄의 말에서 낙양으로 이주한 선비족들이 겪은 생활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¹⁰⁷⁾ 또 한가지는 권력의 중심이 새로운 수도 낙양으로 옮겨간 뒤 漢式 문벌주의 및 漢人 층에 정책에 대한 불만이었다.¹⁰⁸⁾ 과연, 國服도 착용하지 않고, 게다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모국어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직도 면직되었다면 정복자, 지배자로서 선비족은 불편함을 말할 것도 없고 굴

욕과 분노가 깊어졌을 것이다.¹⁰⁹⁾ 결국 고유의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舊來의 관습 改變에 대한 부적응과 정치적 소외감을 표출하며 반란을 도모하였다.

2) 孝明帝때 北鎮의 난

太和20년의 모반에도 불구하고 효문제는 이를 진압하며 개혁정책을 밀고 나간다. 아마도 효문제는 스스로 漢化하여 胡漢의 일치융화를 꾀하는 것이 선비정권을 영속케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효문제의 일련의 개혁정책들은 漢人 신료 重用을 동반하게 되며 이러한 경향은 宣武帝, 孝明帝 때에는 더욱 심해진다. 姓族分定은 선비족 내부에 계층 분화를 가져와 일부 귀족을 제외한 대다수 선비계 士族은 불만을 갖게 된다. 또 선비는 武官 출신자가 대부분이었는데 漢文化 승배의 결과 武人 경시 풍조가 생겨났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 북위의 멸망을 초래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孝明帝 正光5년(524)에 일어난 北鎮의 난이다. 이 난은 북위가 北邊에 남겨둔 10여개의 軍鎮에서 일어났다. 초기에 北鎮에 배치된 사람들은 상당히 혈통이 좋은 선비족들이었는데 70-80년이 경과하는 사이에 사회의 경멸과 정부의 냉대 속에 천민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까지 있었다. 효문제 시대에 이르러 北鎮 및 北邊州의 非文化地帶에 남겨졌던 선비계 部民의 분통함이 반란으로 폭발하게 된다.¹¹⁰⁾ 즉 북진의 난은 선비족 집단 내부에서 진

101) 『魏書』 卷22 孝文五王列傳第10 廢太子 “廢爲庶人, … 賜恠死”

102) 『魏書』 卷7下 高祖紀 第7下 “二十年, 十有二月, 廢皇太子恠爲庶人, … 恒州刺史穆泰等在州謀反”

103) 『魏書』 卷14 神元平文諸帝子孫列傳 第2 “丕雅愛本風, 不達新式, 至於變俗遷洛, 改官制服, 禁絕舊言, 皆所不願. … 至於衣冕已行, 朱服列位, 而不猶當服列在坐隅”

104) 『魏書』 卷40, 陸叔傳, “詔僕射李冲領軍于烈曰, 陸叔元丕, 早蒙寵祿, 位極人臣. … 乃與穆泰結禍, 數圖反噬. 以朕遷洛, 內懷不可, 擬舉諸王, 議引子恠. 若斯之論, 前後非一.”

105) 『魏書』 卷19中 元澄傳 “恒州刺史穆泰在州謀反…鉅鹿公陸叔安樂侯元隆等百余人”

106) 濱口重國(1966), 전계서, p.864

107) 田村實造(1982), 전계서, p.53

108) 川本芳昭, “北魏高祖의 漢化政策의 理解について”, p.69.

109) 田村實造(1982), 전계서, p.53

110) 濱口重國(1966), 전계서, pp.865-866

행되어온 계층분화에 주 원인이 있으며 지위가 하락된 하급 鎮民들의 불만이 상급 진민까지 끌어들이므로서¹¹¹⁾ 動亂은 급속히 확대되었고 북위는 결국 이 난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太和20년의 반란은 舊來의 관습 改變에 대한 부적응, 漢人우대로 인한 소외감 등의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었고, 북위를 멸망으로 몰고 간 북진의 난은 지배민족 내부의 계층분화로 인한 특권상실, 하층민으로의 전락 등에서 발로된 것이었다. 中華적 세계관이 문화를 표방하는 이념적 세계관인 동시에 신분질서를 획정하고 세금징수를 원활히 하는 현실적 제도가 되었듯이 효문제의 일련의 정책들은 “華의 문화”를 통해 왕조의 정통성과 영속성을 꾀하고자 했던 문화적 동화정책이었지만 지배민족 내부의 현실적 利害 문제를 수반하여 결국 선비족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는 모든 정책들을 거부하게 하였다.

2. 후속 왕조의 선비화 경향

北邊의 軍鎮에서 반란이 일어난 후 10여년동안 動亂이 계속되다가 북진 출신인 高歡, 宇文泰에 의해 진압되고 나서 마침내 북위는 동서로 분열되기에 이른다. 高歡을 실권자로 한 東魏는 북위에 불만이 있는 선비계 인사를 많이 획득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효문제에 의해 금지되었던 胡語, 胡風, 虜姓이 거침없이 행해졌고, 주요 大官顯職에 선비계 인사

가 동용되어 漢人신료들도 선비어를 습득할 필요가 생겨 이전 왕조와는 반대로 선비 일색이 되었다. 한편 西魏는 선비계 인사의 획득은 적었지만 사실상 실권자인 宇文泰가 關西에서 일어나 수족처럼 신뢰한 신료는 선비계 인사 또는 北魏 主둔을 명령받았던 선비색이 농후한 漢人이었고, 원래 북위왕조에 대한 선비계의 반대 속에 성립한 국가였기 때문에 동위와 마찬가지로 선비색이 농후한 국가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한 경향은 東, 西魏가 北齊, 北周로 된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¹¹²⁾

다음 사실들은 효문제가 금지했던 선비복식이 후속정권에서 상하를 막론하고 성행하였음을 보여준다. 北齊의 後主때 後主의 동생 儼이 辮髮을 하였던 것으로부터 당시의 辮髮 풍속을 볼 수 있으며¹¹³⁾ “後周시대에 모두 突騎帽을 썼는데 지금의 胡帽과 같다. 裙이 드리워 덮고 帶가 있으며 素髮을 덮은 것의 유속이다. 文帝는 목에 보기 흉한 혹이 있어 항상 이것을 쓰고 있었다”¹¹⁴⁾ 고 하여 鮮卑帽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北齊시대 漢人과 北人 사이의 여밈 방향에 대한 논란¹¹⁵⁾에서 漢문화에 의한 가치표준을 가진 敬顯俊이 孔子의 말을 들어 右衽이 맞다고 한 반면, 北人인 王紘이 좌임·우임에 어떻게 옳고 그름이 있느냐고 한 것은 左衽의 정당성을 말하고자 한 것이며 이로써 당시 左衽이 성행하였음이 증명된다. 또한 北齊 사람들은 가족으로 만든 衣袴와 靴를 착용하였고, 蹀躞帶에 弓箭巾分帳囊刀礪 등의 물건들을 매달았다.¹¹⁶⁾ 심지어 群臣이 靴를 신은 채 上殿하여 漢

111) 川本芳昭, “北魏高祖の漢化政策についての一考察”, 1981, p.283

112) 濱口重國(1966), 전계서, p.866

113) 『北齊書』 卷12 列傳 第4 武成十二王 琅邪王儼 “帝拔儼帶刀環, 亂築辮頭, 良久, 乃釋之”

114) 『隋書』 卷12 志第7 禮儀7, “後主之時, 威著突騎帽, 如今胡帽, 垂裙覆帶, 蓋素髮之遺象也. 又文帝項有瘤疾, 不欲人見, 每常著焉”

115) 『北齊書』 卷25 列傳 第17 王紘 “王紘字師羅, 太安狄那人也, 爲小部酋帥, … 壯少好弓馬, 善騎射, 頗受文學 … 年十五, 隨父在北豫州, 行臺候景與人論掩衣法爲當左, 爲當右, 尙書敬顯儼曰, “孔子云 ‘微管仲, 吾其披髮左衽矣’ 以此言之, 右衽爲是” 紘進曰 “國家龍飛朔野, 雄步中原, 五帝異儀, 三王殊制, 掩衣左右, 何足是非!” 景奇其早慧, 賜以名馬”

116) 『夢溪筆談』 卷1 故事1 “中國의 衣冠은 北齊이후로 胡服을 전용한다. 窄袖緋綠短衣에 長鞞靴을 신고 蹀躞帶를 하니 모두 胡服이다. 窄袖는 馳射에 편하고, 短衣·長鞞는 풀밭을 걸기에 편리하다. (胡人은 무성한 풀밭을 좋아하

인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¹¹⁷⁾ 당시에는 선비 풍속이 성행하여 漢人 역시 靴를 신었다.¹¹⁸⁾

北齊 文宣帝(550-559)가 從官들과 함께 胡服을 입었던 사실¹¹⁹⁾이나 北周 말기 宣帝 즉위시(578) 황제가 처음으로 通天冠, 絳紗袍를 입고, 群臣이 漢魏衣冠을 하였다는 기록¹²⁰⁾에서 당시 황제와 군신에게 모두 胡服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예문들에서의 胡服은 선비 고유복식만으로 볼 수는 없다. 「舊唐書」 輿服志¹²¹⁾에서 唐代 성행하게 된 胡服의 기원을 北齊에 두고 있는데, 同書에서 말하듯 北朝에는 西戎의 制가 섞여 있었으므로 이들 北齊의 '胡服'에는 서역복식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長帽, 短靴, 合袴, 襖子」등은 선비 고유의 복식이므로 북위에서부터 비롯된 선비복식이 서역복식 요소와 함께 北齊시대에 성행하였고 이것이 후대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위 멸망후 갈라진 東魏와 西魏의 실권자 高歡과 宇文泰는 모두 북위의 北魏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北齊, 北周로 이어지는 兩朝에서 모두 선비의 고유복식이 성행하였다. 이는 北魏 효문제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북위 말까지 계속된 漢化정책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VI. 결 론

선비족 왕조인 북위의 역대 황제들의 부담은 어

떻게 해야 다수의 漢族에게 강력한 군주권을 행사하여 선비족 왕조를 영속시킬 수 있는냐 하는 것이었다. 효문제는 漢族의 전통적 통치이념이었던 中華사상에 기초한 개혁이념을 가지고 철저한 同化정책을 폈다.

특히 髮, 帽, 左衽, 上衣, 袴, 帶, 靴, 袴褶 등에서 漢族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선비족 고유복식 대신 周, 漢, 魏, 晉으로 이어져 내려온 漢式 服制를 정비하였을 뿐 아니라 선비족 전체에게 漢族의 복식을 강요하였다. 이는 풍속을 개변함으로써 “夷”에서 탈피하여 “華”를 이루고, 이로써 漢族 지배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정치적 이념이 복식개혁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문화간에는 어느 것이 더 좋고, 옳은 것이며, 또 어떤 것이 나쁘다거나 틀린 것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없음¹²²⁾에도 불구하고 효문제는 문화에 대한 高低의식에서 출발한 中華的 개혁이념을 가지고 복식개혁을 추진하였다.

북위 왕조의 지지기반이 선비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비족의 문화를 버리고 漢族의 문화와 漢式 문벌주의를 도입한 효문제의 정책은 선비족의 불만을 낳았다. 자신들의 풍속과 제도를 포기하고 漢族의 것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강요당한 황태자 및 선비계 상류층 사람들은 민족적 정체성 상실과 정치적 소외감을 그들의 고유복식을 착용함으로써 표출하였으며, 문벌주의적 지배 체제로의 개편·漢人重用·氏族分定 등 계속되는 漢化정책은 선비족 내

여 항상 그 사이에서 잠을 잔다. 내가 북쪽에 있을 때 보니 王廷도 그 속에 있었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갑자기 비가 내려 풀밭을 걷는 동안 衣袴가 모두 젖었는데 胡人은 젖는 일이 없었다) 蹠蹠帶에는 弓箭巾分悅算囊刀礪 등을 매달았다.”

117) 「南史」卷77 列傳 第67 恩傳 周石珍傳 “及簡文(549-551)見立, 檀學北人著靴上殿, 無恭肅之禮”

118) 「北史」卷55 列傳 第43 趙彥深 “南陽宛人 趙隱이 상서령으로 司馬子如의 賤客이 되어 寫書로 일하였는데, 子如가 그의 그릇됨이 없음을 좋아하여 장차 집에서 보살펴주고자 했는데, 隱의 신발(靴)에 麈이 없고, 옷과 모자가 헤어진 것을 보고 그에게 주었다.”

119) 「魏書」序 “帝與從官皆胡服而騎”, 孫同勳, 「拓跋氏의 漢化」, p.133에서 재인용

120) 「隋書」卷11 志第6 禮儀6 “(後周)宣帝即位, 受朝於路門, 初服通天冠, 絳紗袍. 群神皆服漢魏衣冠”

121) 「舊唐書」卷45 志第25 輿服 “北朝則雜以戎夷之制. 爰至北齊, 有長帽, 短靴, 合袴, 襖子, 朱紫玄黃, 各任所好. 雖謁見君上, 出入省寺, 若非元正大會, 一切通用”

122) 한상복의 2인, 「문화인류학」, 서울대출판부, 1982, p.75 이를 ‘문화의 상대성’이라 한다.

부의 계층분화를 가져와 결국 소외된 계층을 광범위하게 만들어 냈다. 누적된 불만은 반란으로 폭발하였고 효문제의 급진적이고 일방적인 漢化정책은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북위를 멸망으로 몰고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반란세력과 같은 배경 속에서 나온 인물들이 집권한 후속왕조는 漢化에 대한 반동적 정책을 취하게 되며 그들 고유의 복식문화를 되찾는다.

중국 최초의 이민족 왕조였던 북위 효문제의 복식개혁을 통해 복식이 治者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과 선비족의 반란, 멸망, 그 이후의 변화를 통해 복식문화가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1) 後漢書 魏書 北齊書 宋書 南齊書 梁書 南史 北史 隋書 舊唐書 (中華書局印刷)
- 2) 論語 資治通鑑 事原實錄 通典 夢溪筆談
- 3)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서울:나남출판, 1997
- 4) 박춘순, “바지교”, 중앙대박사학위논문, 1991
- 5) 濱口重國, 「秦漢隋唐史の研究」下卷3部第7, 魏晉南北朝隋唐史概說, 東京大學出版會, 1966
- 6)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 중세편, 문광회역, 경춘사, 1997
- 7) 杉本正年 編著, 「カラスライド東洋服飾史」, 東京:衣生活研究會, 1982
- 8) 孫同勛, 「拓跋氏의 漢化」, 台北:國立臺灣大學文史叢刊
- 9)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商務印書館, 1992
- 10) 呂一飛, 「胡族習俗與隋唐韻」, 北京:書目文獻出版社, 1994
- 11) 王國維, 「觀堂集林」, 卷 第18 胡服考
- 12) 王維堤, 「衣冠古國」,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1
- 13) 原田淑人, 「漢六朝の服飾」, 東京:大冢巧藝社, 1937
- 14) 이은영, 「복식의장학」, 서울:교문사, 1989
- 15) 이춘식, 「중화사상」, 서울:교보문고, 1998
- 16) 일본동아연구소편, 「이민족의 중국통치사」, 서병국 옮김, 서울:대륙연구소, 1991
- 17) 장현근, 「문화제국주의와 한국:中華주의의 허와 실」, 「진통과현대」, 1998 봄호
- 18) 田村實造, “北魏孝文帝의 政治” 「東洋史研究」, 41-3, 1982
- 19)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北京:中國戲劇出版社, 1984
- 20) 川本芳昭, “北魏高祖의 漢化政策についての一考察”, 「東洋學報」Vol.62, No3·4, 1981
- 21) 川本芳昭, “北魏高祖의 漢化定策의 理解について”, 「九州大學 東洋史東論集」9, 1981.3
- 22) 韓國磐, 「魏晉南北朝史綱」, 北京:人民出版社, 1983
- 23) 한상복외 2인, 「문화인류학」, 서울대출판부, 1982